

2023년 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3년 09월 08일(금) 11:00~12:30
- 장 소 : 마실밥상
- 작 성 자 : 최재병 팀장
- 회의내용 : 일반현황보고, 보고사항 (일반현황, 3분기 세입·세출, 주요사업, 기타보고), 심의사항(추경 및 전용예산안 보고 등), 기타 안전 및 건의 등
- 참 석 자 : 운영위원장 염동문, 관장 곽인철, 이용자대표 신상기·장옥희
후원자 대표 김경미·윤성희, 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대표 강웅기,
종사자대표 고은진·최재병
박영순 부관장(운영위원회 진행), 감미진 과장(운영위원회 준비)

○ 개회	
염동문	통합운영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 개의선포	
박영순	성원 보고를 위원장을 대신해 제가 하겠다. 총 10명 중 9명이 참석해 성원이 충족되었다.
염동문	성원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금강노인종합복지관과 금강노인문화센터 통합운영위원회를 진행하겠다.
염동문	아쉽게도 해외 연구년을 가게 되어 앞으로의 운영위원회 참석을 못 하게 되었다. 참석 못하더라도 복지관과 문화센터 여러 가지 사업들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 오늘도 좋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 전차회의록 보고	
박영순	(보고사항 - 전차회의록을 보고하다.)
염동문	혹시 전차회의록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가? 민원 보고사항이 있었고, 심의 사항이 간략하게 말해주었는데 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현안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일 등	없다.
○ 운영위원회 보고사항	
염동문	현황보고를 부탁한다.
박영순	현황보고는 23년 8월 기준으로 금강노인복지관 회원이 5,766명, 금강노인문화센터 회원이 2,384명이다. 전분기 대비해서 복지관은 200명가량 줄었고, 문화센터는 100명가량 줄었는데 이 부분은 창원시 노인복지관 이용자 현황을 현실화로 전체 어르신 체크하고 전화상담을 통해서 사망하시거나 전출하신 분들, 장기이용 중지하시는 분들을 다 파악했다. 그래서 전 분기 대비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다. 그리고 종사자 현황은 8월기준 금강노인복지관이 16명, 금강노인문화센터 겸직 제외한 5명이다. 문화센터가 저번 분기에는 6명이었는데 1명이 퇴직하여 현재는 5명이다.

염동문	복지관하고 문화센터 시설 현황보고가 있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2023년 3분기 세입·세출 보고 부탁한다.
박영순	(보고사항 - 3분기 세입·세출을 보고하다.)
염동문	주요사업 보고까지 같이 보겠다.
박영순	(보고사항 - 주요 사업 성과 및 계획을 보고하다.)
염동문	기타 보고사항까지 이야기해도 되겠는가?
일 동	좋다.
박영순	(보고사항 - 신규사업 및 기타사항을 보고하다.)
염동문	오래 보고를 해주었다. 들으면서 혹시나 궁금한 게 있는가? 세입·세출 보고도 있었고 복지관과 문화센터 주요사업 보고, 기타보고까지 들었는데 궁금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가?
염동문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혹시나 추가로 필요하거나 공유할 사항이 있는가?
신상기	무척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다.
김경미	노인자원봉사자가 활성화 되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다.
윤성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다는 것에 감사하다.
염동문	그러니까 이게 운영위원회 이렇게 보고 안 받으면 복지관 구체적인 사업들을 자신들 이용하는 것 외에는 잘 모를 것 같다.
신상기	운영위원회 보고자가 이 많은 것을 하나씩 짚어주니까 새삼 대단하다는 게 느껴진다.
김경미	노인 성인식 개선 캠페인을 한다는 것도 대단하다.
염동문	일단 복지관도 그렇지만 본관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활동을 하는 것 같고 창원시에서 지금 내년 계획이 노인복지관이 몇 군데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어 복지관을 좀 더 짓는 그것보다는 본관을 만들어서 금강에서 하는 것처럼 시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박영순	사업을 정리하고 계획하는데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특성이 달라서 본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본관에서는 모집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다음 본관에서 하는 게 본관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저희가 남성 어르신 1인 가구 대상 프로그램도 복지관은 어르신의 참여도가 떨어지는데 반해 본관은 너무 호응이 좋아 4분기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합포구와 회원구 어르신의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사업계획을 하면서 느끼고 있다.
박영순	본관의 어르신 특성과 본관의 어르신 정말 다른 것 같다. 잘되는 프로그램 본관에서 하는 걸 본관에서 하려니 잘 안되더라. 사업적으로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게 한번 해보고 도입을 해보고자 한다.
염동문	가까운 지역이지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아마 또 기존에 참여하던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혹시 다른 의견은 있는가?
염동문	추가 다른 의견 없으면 심의 사항으로 넘어가겠다.
일 동	네.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염동문	그러면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도록 하겠다.
박영순	다음은 심의사항으로 총 2개의 안건이 있다. 1호 의안은 추경 예산안이다. 먼저 4차 추경 예산안이다. 이번 추경은 보조금 신청 마지막 추경이어서 내용이 많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해주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박영순	2023년 기정 예산은 일십오억삼백육십오만원이며 일천사백삼십만육천원을 증

	<p>액해서 일십오억일천칠백구십오만육천을 추가 경정하고자 한다. 세입 추경 내용은 사회교육 신청 인원 증가로 사업 수익이 증액되었고, 예산 대비 후원금 증액과 외부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 증액이 있었다. 외부 사업 예금이자 발생에 따른 증액이 있고 감액으로는 기타 외부 보조 사업이 신규사업 선정에 따라서 자금 이동이 있었다. 세출 추경 내용은 인건비 항목은 예산 대비 증가하였고, 업무추진비 항목은 기관 운영비가 감액되었다. 운영비 항목에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 운영비 목이 감액되었다. LPG가스 인상으로 인해서 연료비가 증가하였다. 사업비 항목을 보면 자원봉사 사업비, 권익증진 사업비, 인지활동 지원 사업비가 감액되었고, 강사료 인상에 따라 사회교육 강사료 증액, 그다음 사업추가로 인한 재가복지사업비가 증액되었다.</p> <p>신규 외부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서 기타 외부 보조 사업과 「마실」 사회적고립 예방 지원 사업의 자금 이동이 있었다. 봉사활동 지원 사업비와 수행기관 운영사업비가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사업계획 대비 예산 변경이 발생해서 자금 이동이 있었다. 예금이자 발생에 따른 반환금이 발생해서 잡지출이 증액되었다.</p>
박영순	<p>다음은 금강노인문화센터 23년 3차 추경 예산이다. 23년 기정 예산은 사역오천구백삼십구만육천원이며 일천사십오만원 증액해서 사역육천구백팔십사만육천원으로 추가 경정하고자 한다. 세입 추경 내용은 이용 회원 증가에 따른 이용료 수입, 그다음 사회교육 수입이 증액되었고 기타 수입은 감액되었다. 종사자 자격 수당 및 종사수당 추가로 인해서 보조금 수입이 증액되었다. 외부 지원사업 선정으로 지정후원금이 증액되었고, 카드 포인트 세입에 따른 기타 잡수입이 증액되었다. 다음은 세출 추경 내역이다. 인건비 항목은 예산 대비 종사자 수당이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대비 증액되었다. 운영비 항목의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차량비, 기타 운영비가 감액되었다. 공공요금 상승으로 공공요금이 증액되었고 신규 차량 지원받은 신규 차량 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제세공과금이 증액되었다. 사업비 항목은 지금 현재 경로식당 이용자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사업비가 증액되었다. 강사료 인상에 따른 사회교육 강사료가 증액되었고 사업추가로 인해서 일반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외부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공동모금회 지원사업비가 증액되었다. 감액된 목은 재가복지사업비, 건강증진 사업비, 인지활동 지원 사업비가 감액되었다.</p>
박영순	<p>이상으로 금강노인복지관과 금강노인문화센터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다.</p>
염동문	<p>추경 예산안 보고가 있었다.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이동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것 같은가? 추경 예산 들으면서 복지관하고 문화센터 들었는데 의문 사항이나 질문할 사항이 있는가?</p>
일 동	<p>없다.</p>
염동문	<p>이용인원이 다 증가하였고, 사업 수익, 외부 사업 선정에 따라 예산 변경이 있었다.</p>
곽인철	<p>이제 본관은 건물이 신축되고 서서히 알려져 신규 이용자가 많이 오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창원의 7개 노인복지관에서 중 유일하게 민간 복지관이다. 나머지는 다 시에서 지은 거고 민간 복지관이다 보니 인원 정리를 제대로 좀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시에서도 우리를 모델로 해서 인원 정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사망자들이나 코로나 여파도 굉장히 컸지만, 신규 인원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본관은 항상 죄송한 게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공간도 좁은 와중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예산을 우리가 시에 계속 보고하고 시에 감사받고 다 한 거를 오늘 이제 운영위원회 우리 전체를 대표하</p>

	시는 분들 모시고 보고회를 가지는 형태인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좀 더 확보돼서 직원 수도 늘려주어야 하는데 제일 큰 게 또 인건비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분관 같은 경우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 예산부분은 제가 관장으로서 이번에 도 감사부터 해가지고 계속 감사받고 또 월마다 직원들이 이걸 다 시에다가 공고해서 확인받는 과정을 또 다 거치고 있다. 운영하다 보면 이 예산이 이렇게 추경을 하고 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도 이제 그 회계법에 맞춰서 하고 있다.
염동문	복지관 4차, 문화센터 3차 추경 혹시 다른 질의 사항은 있는가? 우리 문화센터는 직원 한 명이 퇴직했다.
박영순	계약직 1명 퇴직하였고, 계약직이라 인력보충을 빨리하기 위해 연초 미리 사회복지사 1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그래서 그 한 명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고, 조리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으로 시에서 자격수당을 받게 되어 인건비가 변동이 좀 있다.
염동문	인건비 예산 증액이 되어 한번 질의해보았다.
곽인철	퇴직자가 계약직인데 새로 채용한 직원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다. 사실은 또 분관이 어렵지만 정규직을 채용해줘서 괜찮겠다 했으나, 분관도 사업도 많고 지금 인원으로는 힘들기에 계약직을 곧 추가채용할 계획이다. 복지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복지관 본관도 사실 직원이 정말 모자라다. 그렇지만 이제 직원들이 몇 가지 업무를 해줘서 감사한 마음인데 직원을 계속 채용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예를 들면 똑같은 노인복지관이지만 아까 강웅기 위원이 이야기 해주었는데 사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17억, 18억으로 운영할 때 우리가 2억 5천으로 운영을 했다. 그런 부분에서 차츰 조금 올리고 해서 아예 그 턱밑에 그래도 이제 반 정도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 직원을 안타깝지만, 더 많이 채용해주고 이런 게 힘들다. 복지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인건비가 제일 큰 부분이다.
염동문	복지관 평가받고 할 때 분관, 본관 합쳐서 받으니 사업량이 더 많아 보인다.
염동문	그럼 추경 예산안 다른 의견이 없는가?
일 동	없다.
염동문	그럼 추경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해결되었음을 알린다.
○ 기타토의	
염동문	회의 내용 외 기타 이야기하실 사항이 있는가?
곽인철	본관, 분관 대표자들인가 편하게 말씀해달라. 새로 짓고 하기는 당장 힘들기에 예를 들어서 청소, 지저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를 보는 운영위원회 입장에서 이야기해주며 좋겠다.
신상기	분관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적으면서도 한 명, 한 명 할당을 두 가지, 세 가지 사업을 접해가지고 서로 움직여주어 잘해나가고 있다. 시설이 좁으니까 어떻게 해주기가 뻘한 상황이라 말하기 부끄럽다.
곽인철	분관은 진짜 매입할 땅이 없다. 일단 주변 건물을 안 팔고, 이제 갈 때마다 건의하는 게 엘리베이터를 좀 해주면 해서 그것도 알아보고 대표이사님과 의논 했는데 이게 지하를 파야 해서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책임 맡는 팀장에게 환경개선, 사무용품 좀 새 걸로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다.

김경미	분관에는 3~4번밖에 안 가봤지만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든다. 위에 사무실에 올라가면 선생님이 완전 너무 밝게 있다 보니 인사를 안 할 수가 없다.
염동문	사람이 일하는 거고 그래서 금강이 잘 된다고 보니까 창원시에서도 복지관이 있어도 분관을 고민하는 상황인 것 같고 어차피 인력한계는 문제긴 하다. 혹시 다른 추가 의견 주실 게 있는가?
일 동	없다.
○ 폐회	
염동문	그럼 이상으로 2023년 3차 통합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다. 다들 수고하셨다.